여수 김석철 | 여수 송기홍 | 영광 서희권 | 영암 강원훈 | 완도 김광수 | 장성 반정모 | 장흥 김종민 | 진도 조상용 | 함평 김광춘 | 화순 박순철

화순군, 기능성 차(茶) 본고장 도약 방안 모색

내달 7일부터 4일간 블렌딩 국제차문화제 개최

화순군이 대규모 국제 차 문화제를 열어 기능성 차의 본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화순군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사)아시아 차 문화 연구회 주관으로 '화순 블렌딩 국제차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화순 작설차의 역사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과 세계블렌딩차 전시관, 차 시음과 다식 만들기 등 체험·시음부스, 차 관련 상품 판매부스(60개) 등을 설치, 운영하고 가수의 공연도 함께 한다.

특히 화순에서 전남 지역 약용작물의 55%가 생산되는 강점을 잘 활용하면 차를 포함한 한약초의 고장으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또한 지리적으로 주변 도시의 차를 비롯한 약용작물의 수급이 쉬운 만큼 문화제를 매개로 화순 고유의 차 문화, 약용작물 재배 특성을 활용한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블렌딩(blending)은 여러 가지 차를 혼합하는 것으로 기능성 차는 전통적인 차가 맛과 향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맛과 향은 물론 건강 기능성까지 갖춘 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차는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효과, 노화억제효과, 피부미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설차는 화순 출신 고승인 진각국사 혜심이 처음으로 '작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에는 전국의 특산물 중 능주의 작설차가 소개되어 있다.

쌍봉사를 창건한 철감선사는 끽다거(차 한 잔 마시게)라는 화두로 유명한 조주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발전시킨 초의선사는 20대에 쌍봉사에서 수학한 바 있다.

또한 화순에는 다소, 다지(茶智), 다산(茶山) 등 차 관련 지명이 있어 공물로 차를 진상하거나 차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화순군은 유난히 중국 관련 역사 유적이 많은 곳으로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자 선생을 모시는 사당인 주자묘(朱子廟)가 있다.

주자가 말년에 후학을 기르고 묻힌 곳이 바로 대홍포차로 유명한 복건성 무이산시다.

화순군은 매년 주자묘를 방문하는 중국인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과 차 생산 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주자의 고향이자 오룡차의 본 고장인 복건성 무이산에서 대홍포 등 무이암차로 유명한 제다업체를 초빙하고, 주씨 문중의 개막 헌다례도 병행키로 했다.

또 생물의약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전국 규모의 티 블렌딩 대회를 열어 화순의 생약을 활용한 차 음료를 개발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차문화제를 계기로 화순 차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기능성 차라는 새로운 자원의 발굴과 상업화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2017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성료

개회사·문화공연·유공자표창·럭키박스 추첨 등 풍성

순천시는 최근 버드내공원에서 '2017 순천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충훈 시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근로자, 예비 창업팀 등 사회적경제인과 시민 1000여명이 함께 했다.

'사람이 모여 사랑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마당 행사는 대형공굴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회사, 문화공연, 유공자표창, 럭키박스 추첨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2개가 운영된 부스에서는 커피찌거기로 만든 미니화분 만들기, 양궁, 매실 새총, 손수건 만들기,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붕어빵 나눔, 샌드위치 나눔, 비빔밥 나눔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나눔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함께걸어좋은길 행사와 어려운이웃 주택신축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조충훈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미래 경제를 주도할 경제의 중심축이다"며, "착한기업정신을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인들과 함께 하기에 순천시는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총 136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으며, 교육서비스, 제조업, 공예품제작, 도시락, 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아이 믿고 맡기세요! 열린어린이집 10개소 지정

부모 참여 확대와 교사·부모·지역사회 협력 계기 기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양시가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10개소를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열린어린이집'은 구조와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부모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를 말한다.

시는 접수받은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성과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우수프로그램의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이면서 열린어린이집 관련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으로는 ▲광양읍 한빛어린이집, ▲옥곡면 낙원어린이집, ▲골약동 스마일어린이집, ▲중마동 동그라미, 광양YMCA, 푸른숲, 안데르센, 키즈하버드, 세종, 광양근로복지공단 등 7개소로, 오는 11월부터 내년도 10월 30일까지 1년간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시는 열린어린이집 공간을 부모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관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운영위원회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부모참여를 확대했다.

또 부모교육과 상담,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모의 의견을 보육계획에 적극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등 이번 열린어린이집 지정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각종포상과 정부지원 시 우선선정, 일정기간 모니터링 제외, 민간 어린이집일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2017 오픈가든 페스티벌 개최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낙안면·매곡동·해룡면·도사동서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을 기반으로 마을 내 정원·문화·예술·지역자원을 결합한 주민주도형 정원축제 '오픈가든 페스티벌-마을을 거닐다, 정원을 만나다'를 오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낙안면, 매곡동, 해룡면, 도사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3월 읍면동 공모를 통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읍성을 품은 낙안면과 홍매화 마을여행 1번지 탐매마을 매곡동, 대한민국 해넘이 명소 와온해변이 있는 해룡면, 그리고 이사천이 흐르는 자연경관과 한옥주택을 자랑하는 도사동으로 최종 선정됐다.

낙안면은 '낙안 속의 樂安 정원산책'이라는 주제로 27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운동마을에서 개최된다. 오래된 마을 이야기와 함께 담쟁이 돌담길을 걸으며 개인정원 3개소와 동네정원도 엿보고 대나무화분 만들기, 탁본 등 다양한 체험과 정원미니콘서트, 전통놀이 등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정원! 마을을 걷다'라는 주제로 28일 열리는 매곡동은 탐매희망센터를 중심으로 7개의 개방정원과 마을미술 프로젝트길을 감상하는 투어코스 곳곳에 도자기 화분 만들기, 스타킹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정원미니콘서트가 마련되어 있다.

해룡면은 '바람, 노을 그리고 정원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11월 1~2일 이틀간 개최된다. 천연염색 체험, 전통차 시음 등의 행사가 마련된 해룡면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명상을 취하며 힐링하는 '바람코스'와 노을에서 멋진 공연과 함께 와온 해넘이를 감상하는 '노을코스'의 두 가지 정원 투어코스가 준비돼 있다.

마지막으로 '교량행복 한옥마을 명원기행(名園紀行)'이란 주제로 11월 3~4일 이틀간 열리는 도사동은 전통한옥에 조성된 멋스런 정원과 이사천을 거니는 가든투어와 갈대공예체험, 야외공연, 전통차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픈가든 페스티벌은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개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마을 전체로 확산한 정원축제"라며, "이를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네로 이미지가 상승될 뿐만 아니라 순천형 정원관광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청년 자립기반 형성 도모 '청년정책협의체' 출범

나주 지역 청년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할 나주시 '청년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정책위원 53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위원회 임원선출-위촉장 수여-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설명-기념촬영-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6월, 20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협의체 설립 기반이 될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문화예술활성화,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청년정책위원은 지역 대학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등 청년정책전문가 6명, 청년단체활동가 8명, 강인규 나주시장 등 당연직 5명, 허영우 시의원(시의회 추천)까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 시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또는 변경 관련 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협의체위원 41명은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됐으며 농축산업, 사무·서비스업,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활동가들로 구성됐다.